

이와미 은광의 현재

이와미 은광이 폐광된 지 1 세기가 넘었지만, 한때 은광의 행정-상업 중심지였던 오모리 마을은 지금도 활기가 넘칩니다. 광산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 수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현재 400 여 명으로 줄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마을의 쇠퇴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노력 중 하나는 개발이 제한된 역사 지구에 있는 많은 오래된 건물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789 년에 지어진 현존하는 오모리 최대 규모의 무가 저택인 아베 가문 주택은 현재 상점, 카페, 갤러리인 군젠도가 운영하는 호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젠도 본점은 근처에 있는 에도 시대(1603~1867 년)의 상가 건물을 개조한 건물 안에 있으며, 방문객들은 의류와 현지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정원을 감상하며 점심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역사적 건축물도 사무실이나 공방으로 개조했습니다.

군젠도, 의수족 보조기 제조업체인 나카무라 브레이스와 같은 지역 기업들은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모리의 부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모리의 여유로운 시골 마을 분위기와 자연에 접근성이 더해지면서 일본 각지에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모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명소로는 1801 년에 오모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을 위해 지어진 2 층 저택인 구마가야 가문 주택, 에도시대에 은광과 그 주변을 감독하던 막부 관리들의 본거지인 대관소 터, 마을과 주민들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기가미 신사, 이도 신사 등이 있습니다. 오모리는 도보나 전기자전거로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긴잔 공원에서 전기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